엘리야의 호렙산 계시(왕상 19장)의 형성사

한동구(평택대)

1. 서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같은 음성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그 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 그는 호렙산으로 갔다(왕상 19:3a).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다(왕상 19:1-18). 이 사건이 엘리야의 생애에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 규명하기는 어려우나, 현 본문에서는 갈멜산 사건 직후에 일어난 것으로 보도한다. 이 사건은 엘리야가 아합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 사이에 수많은 충돌 사건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일 것이다.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가운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후계자로 세워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아마도 그의 생애의 말년에 겪은 일로 볼

www.kci.go.kr

수 있다. 이어지는 본문은 하나님 체험(왕상 19:4-8)과 하나님의 계시(왕상 19:9-18)를 전하고 있다. 망명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이어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내용들은 결코 통일적이지 않으며, '엘리야의 하나님 체험과 하나님의 계시'라는 큰 틀 속에 점진적으로 모여진 것들이다. 다양한 역사적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향해 내려진 하나님의 계시를 엘리야의 하나님 체험 속에 한데 묶어두어, 엘리야의 하나님 체험에 대한 해석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본문의 문학적 특징을 살피고, 형성사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1]에 놓여있는 "고요하고 세미한 소리"(왕상 19:12b)의 신학적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방법론적으로 "고요하고 세미한 소리/음성"에 대한 전승사적 및 전통사적 연구를 통하여 신학적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세미한 음성'과 관련된 이 본문은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에 의해 빈번하게 채택된 구약성서의 본문으로, 설교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바람, 지진과 불을 해석하고, 이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였다. 예를 들어 한경직 목사는 바람, 지진과 불을 "사상과 주의의 큰바람" 혹은 "불과 같이 일어나는 혁명"에 비유하면서, 이런 일에 의지하는 것을 "인간의 힘을 믿고, 감정에 휩쓸리는 행위"와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석은 없었으나, 전후 문맥으로부터 '성서'나 '기독교적 가르침' 혹은 "조용한 가운데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의 움직임 같이 소리는 없으나, 확실히 움직이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구약성서의 본문이나 문맥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설교자의 시대적 상황에 근거하고 있다.

---

1) E. W rthwein, *Die B cher der K nige,* (ATD 11/2; G 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4), 227.

www.kci.go.kr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치유하려는 하나님의 음성은 역설적으로 '기적과 같은 큰 소리'가 아니라, 바람결, 침묵 및 인지하기 어려운 소리 등이다. 하나님은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 민감성을 일깨우는 세미한 소리/음성을 통해 계시하신다.

2. 열왕기상 19장 1–18절의 문학적 특징과 형성사

1) 주석단위의 결정

열왕기상 17-18장과 열왕기상 19장은 내용상 상호 연결이 없는 독립된 단락이나, 열왕기상 19장 1-3aα절의 서론보도로 인해 앞(왕상 17-18장)과 뒤(왕상 19장)를 편집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있다.[2] 만약 이 편집적 연결 구절이 본래적이지 않다면, 열왕기상 19장 3aβ절을 시작하는 구절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계시는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끝난다.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 19-21절에서는 이 계시의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내용으로 이차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열왕기상 19장 1-18절을 주석단위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열왕기상 19장 1-3aα절을 전후 문맥을 편집적으로 연결하는 구절로 볼 수 있다.[3]

2) 열왕기상 19장 1–18절의 내용과 구조

열왕기상 19장 1-18절의 중심 내용은 엘리야의 호렙산 여행과 하나님의 계시이다. 전후 문맥을 연결하는 편집적 연결구(왕상 19:1-3aα)를 제외하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남부 경계인 브엘세바를 지나, 호렙산으로 가는 여행 목적과 동기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 엘리야가 호렙산을 여행한 동기를 계속 이어지는 본문(왕상 19:3aβ-9a)으로부터 유

2) S. Timm, *Die Dynastie Omri* (FRLANT 124; G 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2), 102.
3) O. H. Steck, *berlieferung und Zeitgeschichte in den Elia-Erz hlungen* (WMANT 26;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8), 20–21.

www.kci.go.kr

추한다면, 엘리야의 영적 침체에 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하여 갔다. 먼 남쪽으로의 여행은 평범한 여행은 아니다. 여기에서 독자들은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감지할 수 있으며, 이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회복하려는 의도를 인지할 수 있다. 세 번의 좌절에서 볼 수 있듯, 엘리야의 영적 침체는 매우 깊었다. 이어지는 부분은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계시(왕상 19:9bα-18)이다. 하나님 계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최소한 세 차례 중복되고 있다:

첫째,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여행하는 의도와 상응하는 본래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왕상 19장 15-16절에 전하고 있다. "'하사엘, 예후 및 엘리사'를 세워라!"는 명령이다.

둘째, "엘리야야! 네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왕상 19:13b)과 자신을 옹호하고 시대적 상황을 비판하는 엘리야의 답변(왕상 19:14)이 반복되면서, 세겹의 응징과 신실한 자를 살려 남겨 놓았다는 하나님의 재답변(왕상 19:18)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질문(왕상 19:9)과 엘리야의 답변(왕상 19:10)을 재수용하면서, 엘리야의 답변(탄식)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재답변(왕상 19:11-12)으로 신현현의 담론이다. 여기에는 '바람, 지진과 불' 및 '고요하고 세미한 소리/음성'의 대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3) 열왕기상 19장 1–18절의 문헌비평석 분석

앞선 단락(2-1)에서도 언급했듯이, 전후문맥을 연결하는 편집구(왕상 19:1-3aα)가 본래적 요소가 아니라면, 언제 현본문에 포함되게 되었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 사실을 열왕기상 19장 (10b), 14b절에서 암시한다는 점에서 열왕기상 19장 13b-14절과 동일한 문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엘리야의 여행 도중 그의 영적 침체

www.kci.go.kr

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반복은 문헌의 성장으로 인해 야기되었다기보다는, 영적 침체의 심도와 깊이를 말해주는 것으로 동일한 문헌층의 통일된 본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치유하려는 하나님의 계시(왕상 19:9b-18)의 내용은 다중적이다(참조 2-2). 그 중 일부의 표현은 재수용으로 인해 중복되었다. 계시의 서론(왕상 19:9bα, 13bα)과 야훼 하나님의 질문(왕상 19:9bβ, 13bβ)이 중복된다. 여기에는 용어와 문체가 약간 차이 난다(참조 표1). קול(소리)를 보다 정확한 용어인 דבר־יהוה(야훼의 말씀)으로, 그리고 왕상 19장 9bβ절에서 대화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열왕기상 19장 13b절을 왕상 19장 9b절에서 재수용하면서 수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엘리야의 답변(왕상 19:10, 14) 역시 중복되며, 양자의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는 점에서 말씀의 서론, 하나님의 질문과 엘리야의 답변은 한 단위이며, 열왕기상 19장 9b-10절은 열왕기상 19장 13b-14절에서 재수용 했다고 볼 수 있다.

표1	열왕기상 19장 9절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서론	9bα절 והנה דבר־יהוה אליו 보라!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13bα절 והנה אליו קול 보라! 그에게 **소리**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질문	9bβ절 ויאמר לו מה־לך פה אליהו 그(=하나님)는 **그(=엘리야)에게**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엘리야야!'하고 물었다.	13bβ절 ויאמר מה־לך פה אליהו 그(=하나님)는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엘리야야!'하고 물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도 세 차례 반복되고 있으며(참조 2-2), 그 내용의 차이는 동일한 문헌층의 통일된 본문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중복은 아마도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계속되는 역사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침체에 유비시키면서 야기된 것

www.kci.go.kr

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하여 한 차례의 본래적 내용과 두 차례의 해석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다중성은 열왕기상 19장 1-18절이 통일적인 본문이 아니며, 점진적으로 형성된 본문임을 말한다.[4]

4) 열왕기상 19장 1–18절의 형성사

열왕기상 19장 1-18절의 기본층은 엘리야의 호렙산 여행과 영적 침체(왕상 19장 3aβ-9a), 이에 코람데오를 명하는 하나님의 지시(왕상 19:11aα),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한 엘리야의 두려움(왕상 19:13aα-13aγ)이 포함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 주권의 선언을 통해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계시(왕상 19:15aα-17bβ)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본층은 먼저 신명기 사가(참조 4-2-5)에 의해 개정된다. 여기에는 호렙산 여행의 목적으로 이세벨의 박해를 지적한 편집적 연결구(왕상 19:1-3aα), 엘리야의 영적 침체에 대하여 야훼와 엘리야와의 대화(왕상 19:13b-14) 그리고 엘리야의 주장을 반박하는 세겹의 응징(왕상 19:17aα-17bβ)과 남겨진 신실한 자들(왕상 19:18a-18bβ)이 속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이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가'하는 신학적 개정이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엘리야의 영적 침체와 관련된 야훼와 엘리야와의 대화를 재수용하고 있으며(왕상 19:9bα-10bβ), 본질적으로는 신현현담론(왕상 19:11aβ-12b)이 속한다.[5]

---

4) 뷔르트바인은 왕상 19장 1–18절을 원래 '순례 이야기'가 두 차례의 dtr의 개정과 계속적인 삽입으로 성장된 본문으로 주장했다. 참조 E. W rthwein, *Die B cher der K nige,* 226–232. 이와는 달리, 왕상 19장을 통일된 본문으로 이해하는 이도 있다. 넬슨은 바벨론 포로기에 형성된 본문으로 간주하고 있다. 넬슨/김회권 역,「열왕기(상 하)」(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208–212.

5) E. W rthwein, "Elijah at Horeb: Reflections on I Kings 19:9–18", FS für G. H. Davies, *Proclamation and Presence* (Richmond/Verg., 1970), 152–166, 특히 159. S. Timm, *Die Dynastie Omri*, 105에서 재인용.

www.kci.go.kr

3. 열왕기상 19장 1–18절 기본층의 신학적 해석

1) 엘리야의 호렙산 여행과 영적 침체(왕상 19장 3aβ–9a)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가서, 그 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지는 특별한 산을 '시내(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호렙산은 시내산과 동일한 산이었다. 그러나 그 이미지는 각기 달랐다. 시내산은 시내반도에 있는 지리적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며, 호렙(산)은 특정 지역에 고정될 수 없는 정신적-이념적 자리로 사용되었다.[6] 누군가가 새로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에 근거하여 새로이 시작한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으며, 신명기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민족의 역사를 새로이 시작했으며, 그리고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민족의 해방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 원점에서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다시 시작하기를 원했다. 엘리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이 준수해야 하는 십계명이나 법령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 정치적 사명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열왕기상 19장 8절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 장소로서의 호렙(산)에 대한 (매우) 초기의 전승이다.[7]

이러한 그의 의도는 그가 이스라엘의 남부 경계인 브엘세바에까지 가서, 함께 가던 그의 사환을 물리치는 행위에도 더욱 분명해진다. 엘리야는 먼저 유다의 경계인 브엘세바에 가서, '자기의 사환을 그 곳에 머

---

6) L. Perlitt, "Sinai und Horeb", H. Donner/R. Hanhart/R. Smend(Hg.), *Beiträge zu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FS für W. Zimmerl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7), 302–322, 특히 307.

7) 한동구, "구약성경에서 호렙(산)의 이미지와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 기원", 강성열(엮음), 「은혜로운 말씀–평화와 생명의 길」(유행렬교수 은퇴기념논문집; 서울: 한들출판사, 2011), 53–74, 특히, 58–60.

www.kci.go.kr

물러 있어라!'고 하고, 혼자 갔다.[8] 이는 철저히 그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영적 침체는 깊은 것이어서, 그의 결의는 여러 차례 좌절과 결의를 반복한다.

첫 번째의 좌절은 엘리야가 광야길을 하루정도 갔을 때 나타난다. 광야의 한 장소, 로뎀 나무가 있는 곳에서 쓰러져 주저앉았다.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려는 목표도 잊어버리고, 지쳐 탄식했다: "야훼 하나님! (저는) 이제 충분히 살았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제가 제 조상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라고 기도하다가, 그는 지쳐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다. 이는 엘리야의 영적, 육적 침체를 나타내주는 표현이다.[9] 첫 번째의 좌절은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말했다. 천사는 먼저 엘리야의 육적인 회복을 원했다. 엘리야가 잠결에 보니,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다. 엘리야는 (허겁지겁) 먹고 마셨다. 엘리야는 천사의 배려로 먹고 마시며 힘을 얻었으나, 두 번째로 다시 좌절하여 잠이 들었다. 엘리야는 지쳐있었고, 철저히 좌절했다. 야훼의 천사가 두 번째 엘리야를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너무 멀다"라고 말하자, 엘리야는 호렙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되살아,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얻었다. 엘리야는 사십 주 사십 야를 더 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까지 갔다. 그러나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다시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호렙산 동굴에 숨었다.[10] 이것이 그의 세 번째 좌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좌절하게 만들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 호렙산으로 그를 불렀을지 모른다.

---

8) 모세도 홀로 들판에 있었다.

9) 넬슨도 엘리야의 탈진한 상태를 영적 침체로 묘사한다. 넬슨, 「열왕기(상하)」 (김회권 옮김), 209–210.

10) 구약성서에서 동굴은 주로 도피처로 나온다. 참고. 열왕기상 18장 4절; 열왕기상 18장 13절.

www.kci.go.kr

2) 코람데오의 지시(왕상 19:11aα)

동굴에 숨은 엘리야를 야훼 하나님은 불러내어 야훼 앞에 설 것(Coram Deo)을 명한다.[11] "누구 앞에 서다"(...עמד לפני)라는 표현은 어떤 직무와 관련될 경우, 단순한 지리적 표현을 넘어 "누구를 섬기다"를 의미한다. 이러한 표현은 제사장의 직무(신 10:8; 겔 44:15; 왕사 8:11; 삿 20:28; 느 12:44; 대상 6:18)와 관련하여, 또한 예언자의 직무(왕사 17:1; 18:15; 왕하 3:14; 5:16; 렘 15:19; 35:19)와 관련되기도 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말은 공간적 의미를 넘어 '기꺼이 야훼의 뜻을 수용할 준비를 갖추라!'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적으로는 '예언자적 직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라!'는 것을 의미한다.[12]

3) 하나님을 체험과 엘리야의 두려움(왕상 19:13aα–13aɣ)

'예언자적 직무를 (다시) 갖추어야 한다'는 야훼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무엇보다 먼저 두려움에 휩싸인다. 그래서 그는 그의 겉옷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다(왕상 19:13aβ).[13]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체험에서 오는 두려운 신비감의 표현이다. 이를 오토는 '피조물적 감정'이라 불렀다.[14] 이는 야곱의 하나님 체험과 모세의 하나님 체험에서도 볼 수 있는 양상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깨닫고는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얼굴을 감추었다(출 3:6bαβ). 이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과 흡사하다.

---

11) 엘리야가 동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엘리야의 영적 침체와 관련된 야훼와 엘리야와의 대화(왕상 19:9bα – 10bα)가 진행된다는 것은 다소 어색하다. 따라서 열왕기상 19장 9a절에서 열왕기상 19장 11aα 절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참조 S. Timm, *Die Dynastie Omri*, 105.

12) 참조 H. Ringgren, "עמד ʿāmad" *ThWAT* VI (1989), 194–204, 특히 198–199.

13) 팀은 이러한 태도 배후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살수 없다는 사상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두려움의 감정은 대부분의 종교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참조 S. Timm, 윗글, 106–107.

14) 루돌프 오토, 「성스러움의 의미」(왜관: 분도출판사, 2009), 57–62, 특히 57.

www.kci.go.kr

4) 하나님의 계시(왕상 19:15aα–17bβ)

마침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야훼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여 그를 치유하신다. 엘리야가 받은 사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아람의 왕으로 삼아라!는 명령이다. 둘째,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아벨므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예언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 하나님의 계시에서는 야훼가 이스라엘의 왕을 지명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아람의 왕을 지명할 수 있는 '역사의 주'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5) 기본층의 형성연대

기본층의 형성 연대를 결정할만한 역사적 단서는 호렙산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계시(왕상 19:15aα-17bβ)에 주로 나타난다. 여기에 호렙산은 신명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새로운 출발의 기원을 '하나님의 계시'에 두려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엘리야의 본문에서는 호렙산이 이스라엘 땅 밖 최남단에 위치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나, 신명기에서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기원을 나타내는 산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15]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 가운데 '하사엘, 예후 및 엘리사'의 등장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문의 형성을 기원전 9세기까지 상회할 수 없다. 그리고 계시의 핵심 내용으로 세계의 왕들을 임명한다. 이는 세계의 주로 자신의 주권을 천명하는 모습이다. 이 점은 기원전 8세기 후반에 문서 예언자들(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및 미가)이 신의 (역사적) 주권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하나님의 왕-선택' 사상을 말한 것[16]의 발전된 사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본층의 형성연대는 기

15) 호렙산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엘리야 전승이 모세(신명기) 전승보다 선행함을 말한다. 한동구, "구약성경에서 호렙(산)의 이미지와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 기원"; 넬슨, 윗글, 212.

16) 한동구, "사울과 다윗의 갈등—왕의 권력이 해체 과정에서 체험한 성스러움(삼상 19:18–24)", 「한국기독교신

www.kci.go.kr

원전 8세기 말엽으로 볼 수 있다. 이 기본층은 엘리야의 생애의 말년, 즉 기원전 8세기 중엽에서부터 엘리야-엘리사 시대 직후인 기원전 8세기 말엽 사이에 형성된 본문으로 볼 수 있다.

4. 열왕기상 19장 1–18절 개정층의 신학적 해석

1) 이세벨의 박해(왕상 19:1–3aα)

서두(왕상 19:1-3aα)는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즉 '그가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던 일'을 말해주고(왕상 19:1), 이로 인하여 이세벨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하고(왕상 19:2), 그리고 엘리야는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한다(왕상 19:3aα)라고 보도한다. 이 편집구절에 의하면, 이세벨의 살해위협을 피해 이세벨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도망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정층에서도 기본층과 마찬가지로, 호렙산으로의 여행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안전한 곳으로의 여행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맥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기본층에서는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개정층에서는 침체의 원인을 이세벨의 살해 위협으로 구체화시켜 주었다. 이러한 정치적 박해는 엘리야의 답변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당신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오직 나만이 살아남았으므로,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합니다."(왕상 19:14aεbαβ=10aεbαβ)

2) 야훼와 엘리야와의 대화(왕상 19:13b–14)

기본층에서 동굴에 있는 엘리야에게(왕상 19:9aαβ), 야훼께서 코람데오를 외치자(왕상 19:11aα), 엘리야는 동굴에서 나왔다(왕상 19:13aα-

학논총」 82집(2012년 7월), 49–73.

www.kci.go.kr

13aγ; 기본층). 여기에 이어 개정층에서는 야훼와 엘리야와의 대화가 부과하였다. 야훼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했다(왕상 19:13b). 이 질문은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과 유사하다(창 3:9).[17] 이는 야훼께서 엘리야의 행위의 내용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숨어 있는 행위를 질책하는 질문이다. 이에 상응하여 엘리야는 야훼께 변명한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한 야훼신앙의 배교와 전면적인 박해를 말한다. 마치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가 모두 끝난 것 같은 탄식이다. 엘리야 탄식의 중심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교(야훼의 계약을 저버리고 야훼의 제단들을 헐어버린 행위)와 야훼의 예언자들에 대한 박해이다(그들을 칼로 죽인 행위). 그래서 엘리야는 만군의 하나님 야훼를 위해 열심을 다했으나(왕상 19:14aβ), 그 결과가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탄식한다(왕상 19:14bβ).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회의에 빠진다.

3) 세 겹의 응징(왕상 19:17aα–17bβ)

이러한 엘리야의 탄식에 대하여, 개정층에서는 세겹의 응징을 확실한 약속으로 답한다. '박해자들은 야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왕상 19:14aε)라는 엘리야의 탄원에 맞서, 야훼께서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있다면,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있다면,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왕상 19:17)라고 확언하였다.[18] 야훼께서는 심판의 도구를 세워, 그의 백성의 죄를 심판하신다.

---

17) 또한 야훼께서 가인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창 4:10)라는 질문과 유사하다.

18) Stefan Timm, *Die Dynastie Omri*, 109.

www.kci.go.kr

4) 남겨진 신실한 자들(왕상 19:18a–18bβ)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지라도, 그것으로서 야훼와 함께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엘리야는 혼자 살아남았다고 주장하나, 세 겹의 응징에 이어,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며, 그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야훼의 예언자들을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라는 역사적 경험을 들어, 엘리야의 주장을 반박한다.[19]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개정자는 자신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려줄 뿐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5) 개정층의 형성자와 형성연대

이 개정층에서 사용된 표현의 언어적 특징을 살펴보면, 신명기 사가의 언어적 특색을 드러낸다.[20] 계약을 저버리다(עזב ברית; 왕상 19:14aγ, 10aγ)와 제단을 헐다(הרס את־מזבחת; 왕상 19:14aδ, 10aδ; 왕상 18:30). 동시에 예언자적인 언어적 특색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예언자를 (칼로) 죽이다(הרג את־נביא בחרב; 왕상 19:14aε, 10aε), 바알에게 무릎을 꿇다/꿇지 아니하다(왕상 19:18bα) 및 바알에게 입맞다/입맞추지 아니하다(왕상 19:18bβ). 그리고 하사엘, 예후 및 엘리사에 의한 삼중의 심판(왕상 19:17)은 예언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로기적 표현인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한 삼중의 심판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포로기나 포로후기 초기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19) 윗글, 109.

20) E. W rthwein, 윗글, 231은 DtrN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예언적 언어적 특색(DtrP)을 간과할 수 없다.

www.kci.go.kr

6. '세미한 음성'에 대한 신학적 개정층

1) 시각적 신학(Visionstheologie)에서 청각적 신학(Auditionstheologie)으로의 전환

(1) 문학적 구조

신학적 개정자는 야훼와 엘리야와의 대화(왕상 19:13b-14)를 재수용하였으며, 독특한 신현현담론(왕상 19:11aβ-12b)을 포함시켰다. 이 두 요소는 모두 독특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 먼저 대화의 법칙을 따라, 야훼와 엘리야와의 대화(왕상 19:13b-14)를 재수용한 부분(왕상 19:9b-10)은 야훼의 코람데오 명령(왕상 19:11aα) 이전에 와야 문맥이 자연스럽다: 야훼의 질문(왕상 19:9bα-9bβ) - 엘리야의 답변(왕상 19:10aα-10bβ) - 야훼의 코람데오 명령(왕상 19:11aα). 그리고 신현현담론(왕상 19:11aβ-12b)은 야훼의 코람데오 명령(왕상 19:11aα)에 이어지는 담론보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야훼의 신현현담론(왕상 19:11aβ-12b)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동굴 밖으로 나온다(왕상 19:13aα-13aγ). 이러한 구조는 대화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엘리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엘리야는 동굴에 계속 머물러 있는 동안 일어난 것으로 위치시켰다. 팀은 "이러한 구조에는 '하나님의 현현(얼굴)을 본 사람은 살 수 없다'는 사상이 담겨져 있다"고 보았다.[21]

(2) 신현현담론(왕상 19:11aβ–12b)의 내용과 특징

엘리야가 동굴을 나오기 앞서, 계시현상을 성찰하는 신현현이 소개된다. 먼저 야훼의 현현을 보도한다. 보라! 야훼께서 지나갔다(왕상

21) S. Timm, 윗글, 106–107, 110.

www.kci.go.kr

19:11aβ). 이어 세 차례의 신현현의 동반 현상을 보도한다. 그리고 야훼의 현현을 암시하는 세미한 음성을 보도한다.

> 그 때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있어,
> 그것이 산을 가르고
> 바위를 부수었으나,
> 그 바람 가운데에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왕상 19:11aγδ).
>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 그 지진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왕상 19:11b).
>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 불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왕상 19:12a).
> 그 불 후에 고요하고 세미한 소리/음성이 있었다(왕상 19:12b).

본문에서는 자연물로 상징된 세 차례의 동반현상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동일시하는 입장을 거부하고 있다. 야훼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적 존재들과 같이, 가시적인 자연 현상으로 표현될 수 없다. 그리고 처음 세 차례의 동반현상들과 세미한 음성은 대립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반면 야훼 하나님의 임재를 단지 그의 소리로만 인식할 수 있다. 이 신현현담론(왕상 19:11aβ-12b)은 시각적 신학(Visionstheologie)으로부터 청각적 신학(Auditionstheologie)으로의 전환을 목적한다.

(3) 청각적 신학(Auditionstheologie)의 종교사상사적 발전

브니엘-전승(창 32:30, 31),[22] 출애굽기 24장 9-11절, 민수기 12장 8절, 사사기 13장 22절, 이사야 6장 5절 등에서 볼 수 있듯, '하나님의 얼

22) 창세기 32장 30, 31절의 브니엘 전승은 본래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현현(얼굴)을 본 사람은 살 수 없다'라는 신학사상을 전제하고, 야곱에게 윤리적 명령(에서와의 화해)을 위해 해석된 구절이다.

www.kci.go.kr

굴을 본다'는 것이 태고적부터 금지된 이스라엘의 고유한 사상은 아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살 수 없다'라는 사상은 어떤 역사적 계기에서부터 형성되어 계속 발전된 사상이다. 이러한 사상과 관련된 중요한 단락(혹 구절)은 출애굽기 33장 18-23절, 십계명 제 2계명(출 20:4-6; 신 5:8-10), 출애굽기 20장 18-21절(참조 신 5:22-33) 및 신명기 4장 12, 15-19절 등이다. 출애굽기 33장 18-23절에서는 야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모세에게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누구도 나를 보고 산 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금지규정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포로후기의 종교적 규정과 관련이 있다. 출애굽기 20장 18-21절(참조 신 5:22-33)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종교적 규정과 관련하여, 중보자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 배후에는 야훼의 배타성에 근거하여, 제사장 계급의 중보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배타적 우월성의 주장하는 포로후기의 종교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십계명 제 2계명은 신명기 사가(dtr)에 의해 "너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짧은 금령으로 형성되어, 이방신 숭배금지를 지향했다. 포로후기에 야훼의 배타성과 우월성을 나타내는 우상금령은 절대적 배타성과 우월성을 나타내는 형상금령으로 발전되었다.[23] 신명기 4장에서는 형상금령의 신학적 동기를 말하고 있다. 즉, 야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과 질적으로 구별된다는 점을 말하여, 야훼의 절대적 배타성, 즉 야훼의 초월성을 주장한다.[24] 십계명의 형상금령은 야훼의 절대적 배타성을 주장하고, 신 4장의 형상금령은 야훼의 초월성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신학적 주장은 포로후기 제 2성전 공동체의 이상과 계급적 사회구조와 관련된다. 야훼의 초월성에 대한 주장

23) 참고. 민대훈, 「형상금령해석」 (서울: 도서출판 B&A, 2007), 21-32.
24) 베이올라, 「신명기」 (원진희 옮김) (서울: 동연, 2010), 188-189.

www.kci.go.kr

을 통하여, 제사장 계급의 발전과 함께 민수기 1-4장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신정국가의 형성을 추구한다.

2) 지혜문학에서의 세미한 음성

신학적 개정자의 궁극적 목표는 '세미한 음성'에 대한 계시현상의 추구이다. 여기에서 세 차례의 신현현의 동반현상은 한편으로 가나안적 신(들)의 상징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상징이다.

> 바알의 신현현을 상징하는 가시적인 폭풍 가운데 야훼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폭풍은 가나안의 신적 존재를 상징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동반현상이기도 하다(참조 시 83:15; 104:2-4). 창조 하나님께서 자연을 지배하시는 모습이시다.
>
> 지진도 야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시다. 만군의 야훼께서 다윗의 도성으로 상징되는 아리엘을 치실 때에도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을 사용하셨다. 여기의 자연현상은 야훼께서 불러온 이방민족들을 상징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지배하는 창조주에서 역사를 지배하는 심판의 주로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열왕기상 19장 17절에서의 세겹의 응징에서 자연현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야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이심을 분명히 나타낸다.
>
> 그리고 불 역시 야훼 하나님의 계시의 현장이다(참고. 출 3:1-8; 삿 13장; 시 104:2-4; 참조 출 19:13; 신 4:12, 15, 33, 36; 5:22, ...).

여기에서는 자연물로 상징된 동반 현상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동일시하는 입장을 거부하고 있다.[25] 야훼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적 존재

25) E. Würthwein, 윗글, 229-230.

www.kci.go.kr

들과 같이, 가시적인 자연 현상으로 표현될 수 없다.[26] 또한 '세미한 음성'이 '형상을 넘어 음성으로'라는 계시형식의 전환을 목표했다고 하기에는 그 의미를 충분히 밝혔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세미한 음성'은 계시형식의 전환을 넘어 더 깊은 신학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대체 '세미한 음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주석자는 '세미한 음성'을 '침묵의 소리'라고 해석했다.[27] 세상에는 소리는 있으나,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다. 또한 들리지는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소리가 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서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시 19:3-4/히4-5)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지적인) 말씀(토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혜문학인 욥기 4장에서는 욥의 친구 데만 사람 엘리바스의 대답을 전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내 귀는 그로부터 나온 가느다란 소리를 듣는다"(욥 4:12)라고 말하며, 또 계속하여 "그 영이 (내 앞에) 섰으나, 나는 그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었으며; 그 영이 어떤 형상으로 내 눈 앞에 다가왔으나, 나는 조용한 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욥 4:16)라고 말한다. 이러한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는 개인적 체험을 통하여 인지/감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욥기 4장 15절에서는 "어떤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니, 내 몸의 털이 곤두섰다"라고 말하듯, 영적 민감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인지/감지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편 19편 9절(히, 10절)에서도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노래한다. 이는 하나님 경외는 지혜의 시작(혹은 근본)으로서(잠 1:7), 이

---

26) 어떤 주석자는 야훼의 존재로 상징되는 '고요하고 세미한 소리/음성'을 제4의 동반 현상으로 읽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해이다. 참고. 넬슨, 윗글, 204–208.

27) 헤르만, 「이스라엘 역사」 (방석종 옮김) (서울: 나단, 1989).

www.kci.go.kr

를 심령에 간직한 자는 신비한 계시의 음성, 즉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참조 요셉의 인재상).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들을 수 없으나, 경건한 자는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소리이다. 그래서 시편 19편의 마지막 절(14절[히, 15절])에서는 경건한 기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 되기를 원하나이다"에서 종교적인 경건한 삶의 태도를 강조한다.[28]

3) 폭력적 응징에 대한 수정으로서의 세미한 음성

신학적 개정자는 야훼와 엘리야와의 대화(왕상 19:13b-14)를 재수용했다(왕상 19:9bα-10bβ). 이로 인하여 본문의 문맥이 어색해졌으며, 본문의 구조도 부자연스럽다. 그것은 야훼와 엘리야와의 대화의 중요한 신학 사상인 폭력적 응징으로서의 야훼의 심판의 사상을 수정하여, 새로운 신학사상을 제공하고자 했기 때문이다.[29]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한 성찰은 자연스럽게 계시현상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신명기 사가는 예후의 혁명을 신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했다(왕하 9:1-10:31):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야훼의 말씀, 즉 야훼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야훼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이다."(왕하 10:10) 그러나 이와는 달리 호세아에서는 북왕국 멸망의 원인을 예후 혁명의 피바다에 두고 있다(호 1:4-5). 이러한 상반된 해석은 궁극적으로 폭력적 응징과 세미한 음성의 대립과 일치한다. 이러한 신학적 성찰을 가져온 개정자는 아마도 고난의 종과 같은 역설적 신비의 신학을 추구하는 것 같다.

---

28) 시편 19편은 한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토라의 경건을 노래하던 시를, 종교적/영적 경건을 노래하는 시로 발전되었다.

29) 그레이/한국신학연구소번역실, 「열왕기상」(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604.

www.kci.go.kr

야훼의 종(혹은 고난의 종)은 세상적 통치자의 모습과 대조적이다(Kontrastfigur). "그는 소리치지 않으며, 그는 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또한 그는 그의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도 않는다."(사 42:2) 그러나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의 법을 큰 소리로 외치며 선포한다. 만약 그의 법 앞에 불복종할 경우 무서운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 전도서에서는 통치자의 호들갑스러움을 우매함과 연결하여 잘 묘사해 준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전 9:17).[30] 야훼의 종은 자신을 위해 어떠한 선전(Propaganda)하지 않는다. 그는 세계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신다. 그는 희생가운데 있다. 이것은 신앙의 신비에 속하는 것들이다.

동시에 야훼의 종은 꺾여진 갈대를 꺾지 않을 것이며, 희미해진 심지도 끄지 않는다. 야훼의 종의 사명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데 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는 것이다(사 61:1-2). 야훼의 종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제까지의 관점과는 다른 입장에서 설명해준다. 생육과 번성을 통하여 정복과 지배의 철학을 따를 것이 아니라, 섬김과 자기희생을 통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추구하는 길을 따른다.[31]

고난을 통해 야훼의 뜻을 실현하는 신비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된다. 이러한 신비한 진리는 신비주의자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4) 세미한 음성의 신학적 의미

계속하여 신현현담론(왕상 19:11aβ-12b)에 나타난 세미한 음성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앞서 논의에서 살펴보았듯,

30) G. Werner, *Deuterojesaja*, (Calwer Bibelkommentare; Stuttgart: Calwer verl. 1990), 136–138.
31) 한동구,「신명기 해석」(서울: 도서출판 B&A 2004), 168–172.

www.kci.go.kr

세미한 음성으로 표현된 하나님 계시의 신비한 전달을 주장하여,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과) 이스라엘의 이상을 추구하며(참조 6-1),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희생을 통하여 세계(열방의 빛)와 역사(새 하늘과 새 땅)의 이상을 추구하며(참조 6-2), 그리고 지혜신학자들은 양자의 종합을 추구하는 것 같다(참조 6-3). 세미한 음성으로 표현된 하나님 계시의 신비한 전달방식은 포로후기에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서 주장했으며, 구약성서의 성령론 혹은 영성론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6. 참고문헌

넬슨, 「열왕기(상/하)」 (김회권 옮김)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그레이, 「열왕기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민대훈, 「형상금령해석」 (서울: 도서출판 B&A, 2007).

베이욜라, 「신명기」 (원진희 옮김) (서울: 동연, 2010).

오토 루돌프, 「성스러움의 의미」 (왜관: 분도출판사, 2009).

한동구, 「신명기 해석」 (서울: 도서출판 B&A 2004).

_____, "사울과 다윗의 갈등-왕의 권력이 해체 과정에서 체험한 성스러움(삼상 19:18-24)," 「기독교신학논총」 82집(2012년 7월), 49-73.

_____, "구약성경에서 호렙(산)의 이미지와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 기원", 강성열(엮음), 「은혜로운 말씀-평화와 생명의 길」 (유행렬교수 은퇴기념논문집; 서울: 한들출판사, 2011), 53-74.

헤르만, 「이스라엘 역사」 (방석종 옮김) (서울: 나단출판사, 1989).

Perlitt, L., "Sinai und Horeb", H. Donner/R. Hanhart/R. Smend(Hg.), *Beiträge zu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FS für W. Zimmerl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7), 302-322.

www.kci.go.kr

Ringgren, H., "עמד ʿāmad" ThWAT VI (1989), 194-204.

Steck, O. H., *Überlieferung und Zeitgeschichte in den Elia-Erzählungen* (WMANT 26;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8).

Timm, S., *Die Dynastie Omri* (FELANT 124;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2).

Werner, G., *Deuterojesaja* (Calwer Bibelkommentare; Stuttgart: Calwer verl. 1990).

Würthwein, E., "Elijah at Horeb: Reflections on I Kings 19:9-18", FS für G. H. Davies, *Proclamation and Presence*, (Richmond/Verg., 1970), 152-166.

_____, *Die Bücher der Könige* (ATD 11/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4).

검색어

엘리야
호렙산
세미한 음성
하사엘
예후

www.kci.go.kr

Elijah's Flee to Mount Horeb and God's Revelation

Dong-Gu Han, T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PyungTaek University

The present article aims to find a theological meaning of Elijah's flee to Mount Horeb, written in 1 Kings 19:1-18. As the story is followed by God's revelation to him, it therefore also examines what is reveled and what theological significance it bears.

The contents of God's revelation at Horeb are consisted of various elements inconsistent. God's revelations given to Israel at the various historical settings are all condensed in Elijah's experience of meeting God; ultimately all are put under "Elijah's experience of God and His revelation". Thus it makes the interpretation of Elijah's incident matter.

The present study, first of all, observes the literary characteristics of the text in question, and reconstructs the history of its development. What revelations are meant in each stage of the development is sought after; particularly the "gentle whisper"(1King 19:12b), the supposed core of the revelations, is read to find its theological significance. Methodologically it was done by examining the history of its transmission and traditions.

The "gentle whisper" was heard in the voice of various social groups in the post-exilic periods, and it is one of major parts in the study of pneumatology and spirituality of the Old Testament. With it, the priests were seeking (the interest of their own class and) Israel's ideal, the

www.kci.go.kr

prophets the ideal of the world (the light to the nations) and history (the new heaven and earth) by means of their sacrifice, and the wisdom theologians synthesisofboth.

Keywords

Elijah
Mount Horeb
Gentle Whisper
Hazael
Jehu

■ 투고일: 2014년 7월 01일
■ 심사일: 2014년 7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8월 06일

www.kci.go.kr